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약속

완주·전주지역 4개 경제단체, 결연식 가져... 지역경제 활력·청년·미래 위한 도약 다짐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회장 성도경)와 이노비즈전북지회(회장 임동욱),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강동오), 전주시기업인협회(회장 강은주)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니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



완주군민협의회와 이노비즈전북지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기업인협회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니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력,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전주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업의 공간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해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협력 결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내 진정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4개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결연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지역이 하나 되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라며 "완주와 전주의 기업들이 만들어갈 상생의 물결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더 큰 하나의 내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CCTV 모니터링으로 시민 생명 구해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길가에 쓰러진 시민 발견·신고

전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최근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갑자기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관제요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4시 23분경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숲내5길 부근에서 혼자 걸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

당시 폭염으로 환자의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관제요원은 즉시 112에 신고했으며, 의식을 잃은 환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응급



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덕진경찰서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지난달 31일 해당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경찰서와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으로 응급환자를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4개 지구 1590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충족된 완산구 태평1지구 등 4개 지구 1590필지(80만6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합치점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구는 △완산구 태평1지구 △평화2지구 △덕진구 인후2지구

△여의2지구 등 4개 지구로,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2800만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웃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인후도서관, '인후씨네' 프로그램 운영

영화 특화 도서관인 전주시 인후도서관은 영상에 익숙한 세대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독자로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후씨네(CIN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9월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원작소설로 만나는 영화 독서 토론 △원작소설로 시나리오 다시 쓰기 △영화 상영 총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영화차유 강연 프로그램인 '원작소설로 만나는 영화 독서 토론'은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된다.

이어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원작 소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시나리오를 창작해 보는 '원작소설로 시나리오 다시 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인후도서관은 매주 화~목요일과 주말 오후 2시, 도서관이 선정한 작품을 상영하는 정기 상영과 운영 시간 중 이용자가 원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상시 상영 등의 '영화 상영'도 진행한다.

정기 상영은 도서관 2층 '영화에(愛)뜰'에서, 상시 상영은 1층 1인 영화 코너와 2층 '영화에(愛)뜰'에서 각각 진행된다. /권희성 기자

도심 침수 선제적 대응 나선다

전주시, 침수취약지역 계속시스템 구축 추진

전주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시는 기상이변에 따라 급증하는 극한 강우와 지역별 강우 편차가 큰 소나기성 호우 등에 따른 도심 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취약지역 계속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방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실시간 수위 정보를 수집·분석해 침수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하상도로와 침수취약 지역에 수위 센서와 CCTV가 설치돼 24시간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수집된 데이터는 재난 예·경보시설 및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

된 전주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돼 침수 발생 시 즉각적인 경보 발령 및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까지 25개 상습 침수지역에 △침수 위험 도로 수위 계측 △강우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량 계측 △하천의 범람 또는 홍수 등의 상황 발생 시 재난경보 발령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침수 위험 경보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재난 정보 신속 제공 △침수 수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침수 계속시스템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앞으로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